

과학기술인 국회 입성

· · 국회의 전문성 제고 기대

클 | 권영일_ 사이언스타임즈 기자 sirius001@paran.com

국회에 법률가나 경제 전문가가 많지만, 과학기술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채영복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은 “과학기술인의 국회진출은 중요하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과기인의 정계 진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기계 출신 후보 지역구에서 4명 당선

18대 총선에서는 비록 소수정예이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과기계 인사들이 예상 밖의 선전으로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아쉽지만 초석은 다진 셈이다.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4명으로 한나라당에선 서상기(대구 북을) 의원과 박영아(서울 송파을), 구본철(인천 부평을) 후보가 당선됐다. 통일민주당에선 토목공학박사인 조정태 의원이 2선의 영예를 안았다.

비례대표로는 한나라당 후보 3번을 배정받은 배은희 한국바이오 벤처협회 부회장과 15번 손숙미 한국영양사협회장이 축배를 들었다.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이용경 전 KT사장도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계 인사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던 과학기술계인들이 많지 않았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17대 국회에서 과기계를 위해 활약한 홍창선 의원(민주당)과 서상기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이다. 지역구 의원을 4명씩이나 배출한 것은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기인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는 아픔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부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과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시 과총과 과실연 등을 중심으로 인수위에 과기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해부족 등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채영복 전 과총회장은 “국회와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인원포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하루 전날 오후, 벚꽃놀이에 나선 시민들이 국회에서 기념촬영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개원 60주년을 맞아 대형 현수막에 적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08년 4월 8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서 과학기술 분야를 이해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과학기술계에서 정계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기계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들을 여의도에 입성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 살리기 먼저’ 라는 실용주의의 목소리에 눌려 각 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역구 출마에는 애초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비례대표를 원했으나 외면당했다. 따라서 이번 18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과기계 출신 예비선량들을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상기 의원, 86.3%의 절대적 지지 얻어



서상기 의원

한국기계연구원장 출신인 서상기 의원이 대구 북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만해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예선전에서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자 3선의 안택수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안택수 의원은 국회 재정위원장을 지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대구 지역 친이명박계 수장이다. 서

의원이 여당 중진이며, 친이계 핵심인사를 공천에서 눌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공천에서 초반엔 뒤지다가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다.

그는 본선에서도 투표자의 86.3%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 지지율은 민주당 박주선·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 이어 전국 3등이다. 그는 총선에서 모바일 특구 구축과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고속철도 건설, 교육시스템 개혁을 내세웠다.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도시고속철도 설치는 자기부상열차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기부상열차는 기계연구원장 재직 시절 그가 만든 작품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17대보다 더 발언권이 강화된 모습으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의 3개 상임위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무게 중심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쏠려 있다.

박영아 교수, “과학기술에서 성장동력 찾을 것”



박영아 의원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박 교수는 서울 송파갑에 전략 공천돼 지역투표자 가운데 61.6%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박 당선자는 20여 년의 학계생활 동안 ‘여고생을 위한 물리학 교실’ 등 여성전문 인력 양성과 기초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앞장섰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과학계의 벤치

마킹 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자신에게 거는 과기계 인사들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제2의 부흥을 이뤄야 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당찬 의지를 내보였다.

과학기술계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학과 외면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 위기해결의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는 앞으로 5년 간 과학·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매진할 생각이다.

배은희·손숙미 박사, 전문성 발휘 기대



배은희 의원



손숙미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배은희(주리젠바이오텍 대표이사)는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세포분자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IST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배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내내 이명박 대통령의 미래산업분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신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기술력 하나만 믿고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오면서 몸소 겪었던 경험과 좌절을 바탕으로 IT, BT, NT 등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된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영양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영양사협회장인 그는 지난 1969년 대한영양사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손 교수는 국회에서 영양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최적의 정책 마련, 국민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의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다.

KT 민영화 주인공 이용경, 정계 입문



이용경 의원

KT 민영화를 이끌었던 이용경 전 KT 사장은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미국 UC 버클리어에서 전기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T사장 재임시절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KT 사외이사를 지낸 인연을 계기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당선자는 1991년 KT 연구개발 단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해

2001년 KTF사장을 거쳐 2002년 8월 민영 1기 KT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창조한국당 공동대표로 영입돼, 17대 대선에서는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치 투신 이유에 대해선 “경험과 지식을 IT 분야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통신산업 정책과 관련, 그는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적 인수합병에 흔들려선 안되며, 중소기업 중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신도 수많은 협력사들이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고, 대기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목을 매지 않도록 산·

학·연 연계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한다는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철 당선인, IT 신사업 전문가



구본철 의원

인천 부평구에 출사표를 던진 구본철 텔넷웨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홍영표 후보와 경합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 전자공학박사인 그는 인하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구본철 당선자는 기술고시 16회 출신으로 1981년 체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82년 KT로 소속이 전환

돼 줄곧 KT에서 근무했다. 구 당선자는 KT에서 u-시티본부 개발국장, e-비즈니스사업본부 사업기획팀장을 맡는 등 IT의 활용 분야와 네트워크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다.

‘신선하고 깨끗한 전문가’를 내세운 그는 ‘정치는 서비스’라는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12년 민주당 텃밭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18대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그는 가능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일을 하고 싶단다. 구 당선인은 “지금 방송통신 정책은 거의 ‘땅따먹기’ 수준이다. 통·방 융합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만의 먹을거리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땅따먹기 논리에 밀려 시장을 기다려 온 수많은 벤처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무너지고 있다”며 “KT, SKT, LG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도 투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곧 정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토목공학 박사 조경태 의원 재선 성공

부산 사하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경태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년 간 보여준 지역구 발전을 위한 노력과 상임위·국정감사 등에서 나타난 ‘일하는 의원’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전공을 살려 토목공학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해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특히 이공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IT 분야 일자리



조경태 의원

창출 등 IT와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기술전문가의 지위향상과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IT·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IT·과학기술 분야임에도 현재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서민에게도 널리 보급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각종 국책 토목사업의 문제점과 부산신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신규 사업의 로드맵을 명확히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위 위원장 출신들 견재 과시

의사 출신으로는 정의화 의원이 부산 중구·동구에서 당선, 4선에 성공했다. 또한 신상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성남 중원에서, 안홍준 의원은 경남 마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전북 고창·부안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로는 한나라당에서 의사인 조문환 고신대 외래교수가 14번을, 통합민주당에서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변호사가 7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약사출신으로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상임감사가 각각 당선됐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신 한의사 출신의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도 이번에 금배지를 달았다. 이애주 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17번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20명 가운데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은 14명으로 그 중 9명이 당선되고 5명은 낙선했다. 전 과기정위 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봉 의원도 견재를 과시했다.

한나라당은 6명이 출마해 3명이 축배를 들었다. 신상진(경기성남중원), 김영선(경기고양시 일산서구), 서상기(대구 북을) 의원이 당선 기쁨을 누렸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김효석(전남 담양·곡성·장성) 의원, 류근찬, 권선택 의원도 자유선진당 간판으로 충남 보령서천과 대전 중구에서 각각 재선됐다. 무소속 김태환 의원(경북·구미·전 한나라당)도 재입성에 성공했다. **ST**



과기정통위 출신 국회의원 - (윗줄 왼쪽부터) 김형오, 이해봉, 신상진, 김영선, 이종걸, (아랫줄 왼쪽부터) 변재일, 김효석, 류근찬, 권선택, 김태환 의원